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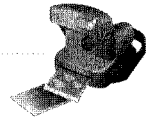
2010 우유과학교실 성황리에 마쳐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기도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자연가득, 사랑가득! 신나는 우유놀이터'란 주제로 2010 '우유과학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젖소의 생태를 비롯하여 우유와 관련된 과학이론과 원리를 쉽게 배우며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10 '우유과학교실'은 첫날부터 2천여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행사장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번 우유과학교실에서는 젖소의 성장과정과 우유 제조과정을 알 수 있는 우유목장교실, 우유아이스크림과 치즈를 직접 만들어 보는 우유체험교실, 우유의 영양 정보를 알려주는 우유건강교실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먼저 우유목장교실에서는 모형으로 제작된 목장과 젖소의 모습을 보며 젖소의 생태에 대해 배우고 송아지가 태어나 육성우가 되고 암마소가 되어 우유를 짜는 젖소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목장에서 만들어진 우유가 우유공장으로 보내져 290여 가지 검사를 꼼꼼하게 거치는 제조과정을 보여 주어 우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제품임을 알렸다.

우유과학교실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우유체험교실에서는 즉석에서 우유를 넣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는 아이스크림 체험과 우유에서 나온 치즈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우유가 소금과 얼음을 만나 얼음알갱이로 변하고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에서 아이스크림 속에 숨겨진 간단한 화학원리를 몸소 체험해볼 수 있었다.

우유건강교실에서는 관람객들이 체지방을 직접 측정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완전식품으로써의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도 우유 영양동산에는 우유의 영양성분을 사물의 이미지에 의인화 시켜 재미있게 표현해 곳곳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재미있는 놀이방 개념을 살려 이미지와 영어 단어를 보고 배울 수 있게 공간을 구성한 우유공작실에서는 우유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재미있는 그림과 만들기 등이 마련되었다. ㉞